



부정훈련 신고·
제보 바로가기



훈련품질관리
콘텐츠 바로가기



보고 듣고 배우는 부정훈련 사례집

보고 듣고 배우는 부정훈련 사례집



보고 듣고 배우는 부정훈련 사례집



알고 보기

1.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기
2. 노래를 들으면서 각 부정훈련
주요 사례에 대해 읽어보기
3. 가사를 조금 더 보고싶다면
34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부록 확인하기



발간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발간사	4	주요 부정훈련사례	사례 05 근로 강요 실습일까? 노동일까?	20
기관소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소개	6		사례 06 훈련내용 미준수 강사에겐 보이지 않는 교과목	22
	훈련품질관리체계 소개			사례 07 교강사 폭언·자리 이탈 강사는 게임 실습 중!	24
주요 부정훈련사례	사례 01 장소 미준수 배추밭에서 생긴 일!	12		사례 08 훈련내용 미준수, 무자격 강사 경력자는 자격 없어도 OK?	26
	사례 02 재료 구매 강요 짧아지는 텀, 늘어가는 자부담비!	14		사례 09 훈련 자료 관리 미흡 기록되지 않은 그날의 수업	28
	사례 03 임의합반, 훈련내용·훈련시설 미준수 강아지웃? 사람웃? 우리가 만든 건 무엇인가요?	16	사례 10 교재 미준수 나만 믿으라더니 이제 와 나 몰라라?!	30	
	사례 04 임의합반 도자기와 함께 빚어지는 갈등	18	부록 사례별 노래 가사 모음	34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이장희 원장입니다.

우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매년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품질을 높이고 올바른 훈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정훈련 사례집’을 발간해 왔습니다. 이 책자는 직업훈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많은 직업훈련기관이 이를 통해 부정훈련을 예방하고 훈련 품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부정훈련 사례집은 ‘그림을 통해 보는’ 사례집을 넘어 훈련기관에서 더욱 쉽고 재미있게 내용을 익히실 수 있도록 각 사례에 대한 노래를 제작, 제공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노래라는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요소를 더한

이번 사례집은 부정훈련 예방과 관리 방안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기관 관계자들이 더욱 쉽게 사례를 이해하고, 올바른 훈련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직업훈련 품질 향상과 신뢰 구축에 앞장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직업훈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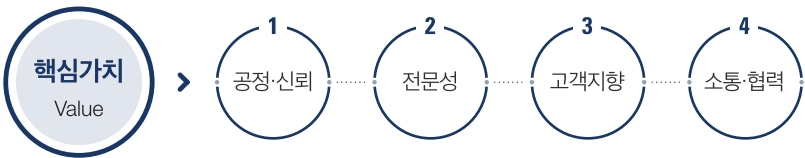
2024년 12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이 장 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소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심사·평가에 대한 통합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능력중심 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자 2015년 4월 설립된 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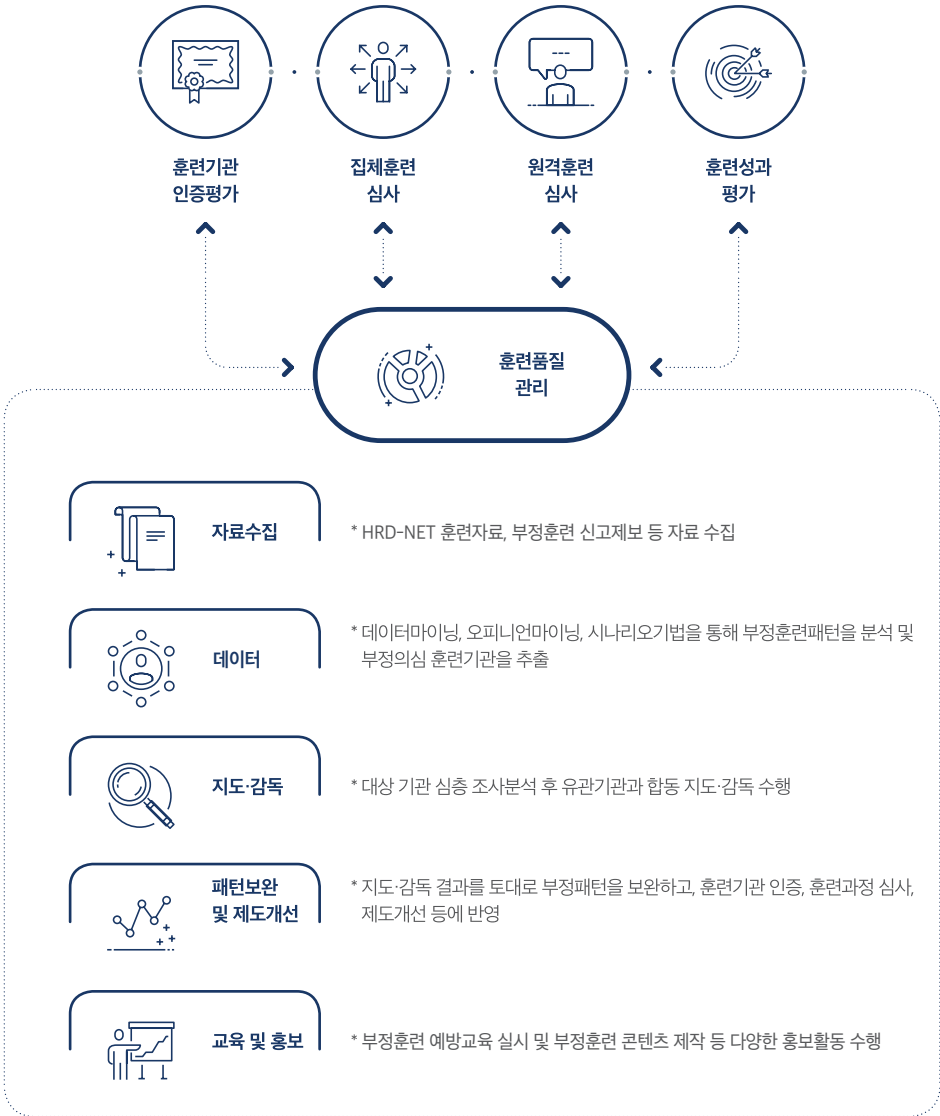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기능 및 역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 직무를 체계화·표준화한 국가직무 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고 심사·평가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직자와 재직자가 양질의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KSQA 훈련품질관리센터 소개





부정훈련·부정수급의 개념 및 유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운영할 자격을 얻었거나, 얻으려고 한 경우
-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인정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여 훈련의 품질을 저하시킨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운영'과 '성과'에 관련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수당을 지원 또는 용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부정훈련관리 목적 및 협업체계

목적

훈련기관이 승인받은 과정을 운영하고, 지원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함으로써, 부정훈련 및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올바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을 조성하기 위함

- 훈련기관이 수준 높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품도 조성
- 정당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생의 권리 보호
- 직업훈련 품질 향상 및 클린훈련문화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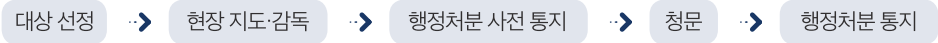
협업체계



부정훈련관리 절차



합동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



보고 듣고 배우는
부정훈련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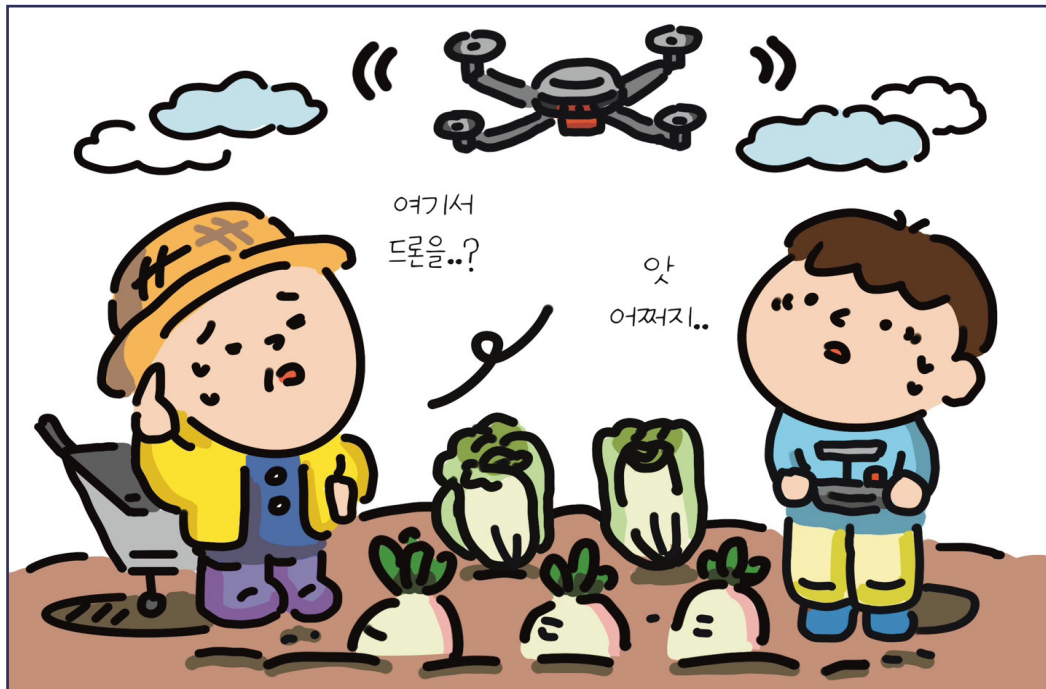
01

주요 부정훈련사례

사례 01

장소 미준수

“배추밭에서 생긴 일!”



▶ 노래로 들어볼까요?

♪ 조종사 되려면 확실하게 배추 무밭 벗어나 제대로
안전하고 정확한 비행 위해 적합한 장소 찾아야 해



+ 부정훈련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하는 직업 및 직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곳곳에서 드론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직업훈련시장에서도 드론 조종 등과 관련된 다양한 훈련과정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론 관련 직업훈련과정은 ‘비행 조종’ 실습 시간이 주요 교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을 직접 띄워보고 조종하는 일련의 실습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훈련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웹툰에서 보시는 장면과 같이, 농업지로 활용되는 장소이거나 그 외 비행 실습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비행 훈련도, 드론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한 수업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드론 훈련 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이론 강의 공간 외에도 ‘드론 조종 실기’ 등의 내용에 대한 실습 교과 운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비행 장소를 포함한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배추, 무를 심는 농업 활동을 하는 공간에서 드론을 띄우고 조종하는 실습을 할 경우, 안전사고의 문제와 실제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장 규격과 상이한 문제로 정확한 훈련이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드론 전문교육을 위한 훈련 장소를 확보하여 효과적인 훈련으로 운영하시길 권장합니다!

tip 부정훈련 예방에 관한 팁을 배워볼까요?

Q. 승인받은 훈련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부정훈련에 해당하나요?

A. 직업훈련기관은 훈련과정을 승인받을 때 훈련장소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지정된 훈련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훈련장소 미준수로 부정훈련으로 간주합니다. 부득이하게 훈련장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변경절차를 거쳐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례 02

재료 구매 강요

“짧아지는 털, 늘어가는 자부담비!”



▶ 노래로 들어볼까요?

♪♪ 추가 재료비는 훈련생 책임이라 해도, 기본 재료 제공은 기관의 책임이지 불필요한 재료 모아 비싸게 팔지 마, 어떤 재료 살 건지는 훈련생의 권리야



+ 부정훈련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고령화 사회, 비혼 문화, 독신 및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며 펫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견미용사의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거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애견 미용사 과정을 신청합니다. 이 과정은 반려동물의 다양한 품종별 특성을 이해하고, 미용 방법과 도구 사용법을 배우며 위그 연습과 실견 실습을 통해 실무 기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둡니다.

A훈련기관은 위그와 기초도구세트를 지급한다고 안내했으나 과정 신청 후 각종 명목으로 재료 구매를 강요해 훈련생들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는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부정훈련 사례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자비 부담 없이 운영한다고 공고해 놓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훈련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기관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훈련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며, 자격증 장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애견미용사는 반려동물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훈련기관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기술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tip 부정훈련 예방에 관한 팁을 배워볼까요?

Q. 훈련기관에서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훈련생에게 재료구매를 강요한다면 훈련생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훈련기관이 승인받은 훈련비와 재료비를 위반하여 재료구매를 강요한다면, 훈련생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부정훈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재료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기관의 신뢰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03

임의합반, 훈련내용·훈련시설 미준수

“강아지옷? 사람옷? 우리가 만든 건 무엇인가요?”



▶ 노래로 들어볼까요?

♪ 티셔츠랑 후드티, 조끼 가방까지 만든다더니

웨딩드레스 만들고 남은 천으로 강아지용 드레스를 만들라구요?

비슷하다고 욕심내다 두 마리 토끼 다 놓쳐요. 훈련은 제발 따로따로 운영해 주세요



+ 부정훈련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직업훈련의 대표 직종 중 하나인 ‘패션(의류 제작)’ 직종은 직업훈련의 초기부터 오랜 시간 높은 산업 수요와 함께 많은 훈련 기관에서 직업훈련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의류와 장식 등 패션 아이템을 제작하는 훈련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존 의류 제작 훈련기관에서 반려동물 의류 제작 과정을 새롭게 운영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패션 직종의 두 훈련과정은 훈련 목표와 세부 내용 및 방법 등이 달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승인을 받은 ‘훈련 내용, 장소, 방법’ 등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유사한 교과목이 포함된 과정이라도, 실습 방식, 장비 및 재료 등은 다르므로 각 과정의 운영방식에 맞게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교과목이 비슷하니까, 두 과정을 합쳐 운영하자’는 생각으로 수업을 임의로 통합하면 승인받은 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행정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훈련과정이 훈련 내용에 맞는 실습과 재료 활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과정에 적합한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훈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tip 부정훈련 예방에 관한 팁을 배워볼까요?

Q. 훈련목표와 세부내용이 거의 비슷한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이라면 합반하여 운영하여도 되나요?

A.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합반하려면 고용센터에서 합반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 훈련과정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수준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HRD-Net에 등록되어 있는 훈련과정코드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훈련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인한 훈련과정 폐강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도 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와 사전에 논의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04

임의합반

“도자기와 함께 빛어지는 갈등”



▶ 노래로 들어볼까요?

♪ 도자기 흙을 만지며 배워가는 길 취미와 소양 온갖 명분 속에
직업 훈련생도 함께 섞여들어 공정한 길이 아득하게 멀어져가네



+ 부정훈련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원데이 클래스는 하루 만에 도자기 제작 기법을 배우는 단기 과정으로, 수강생들은 체험이나 취미를 목적으로 참여합니다. 반면, 도자기 공예기능사 일반과정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직업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나 정원대비 훈련 인원이 부족하거나 강사 인력 및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서로 다른 두 과정을 임의로 합반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과정을 합반으로 진행하면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은 기대했던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공예기능사 훈련생은 심도 있는 내용을 배우지 못해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강사가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면 강의 준비와 진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강사의 피로가 누적되어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훈련생들의 서로 다른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데이 클래스와 일반과정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반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훈련생의 수준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강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훈련생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강의 내용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tip 부정훈련 예방에 관한 팁을 배워볼까요?

Q. 훈련과정에 정부지원 훈련생과 지원 외(일반) 훈련생을 포함해도 될까요?

A.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정원’ 범위 내에서만 정부지원 훈련생과 지원외(일반 자비 부담) HRD-NET 확정자신고 시 반드시 참여하는 ‘지원 외(일반) 훈련생 수’를 기재(입력)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훈련에 참여시키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례 05

근로 강요

“실습일까? 노동일까?”



▶ 노래로 들어볼까요?

♪ 매일 아침 청소 도구 들고 바닥 구석구석 닦아내고 나니
요양보호사 배우러 왔건만 배울 건 없어라 허리 휘어져



+ 부정훈련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노인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 돌봄을 넘어서, 가족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요양보호사 실습 훈련생들이 실습기관에서 청소 및 허드렛일만 하고, 근로를 강요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습 교육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로 훈련생들의 교육 기회를 침해하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며, 실습 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실습 교육을 통해 실제 요양 시설에서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 기관은 실습생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실습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생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훈련생들의 실습의 질 향상은 요양기관에도 더 나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tip 부정훈련 예방에 관한 팁을 배워볼까요?

Q.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해당과정에 활용되는 강의실, 실습장 정리 등을 요구할 수 없는 걸까요?

A.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훈련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또는 인정받은 내용과 상관없는 활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미용·요리 등 실습과 관련하여 훈련생 본인 좌석(자리)을 정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습을 가장하여 사실상 근로를 유도하거나 강요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06

훈련내용 미준수

“강사에겐 보이지 않는 교과목”



▶ 노래로 들어볼까요?

♪ 강사님의 수업 내용엔 몇 과목이 빠져 있네.
자습으로 대신하고, 다른 과목으로 채우고,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사라져만 가네.



+ 부정훈련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최근 AI, 빅데이터, 로봇 등 신기술 분야의 성장으로 기술, 산업, 학문 간의 융합이 활발 해지면서, 직업훈련에도 다양한 직종의 교과목을 병합한 융합 분야 훈련과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 신청 시 교과목별로 전문분야의 훈련교·강사를 배정하여 인정받고, 훈련과정 운영 시 교강사를 한 명으로 일괄 변경하거나 유사 분야의 교강사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명의 훈련교·강사가 전체 과정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어, 자신의 전문분야 교과목만 집중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과목은 소홀히 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훈련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훈련교·강사의 전문성에 기대어 훈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전체적인 훈련과정 운영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훈련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tip 부정훈련 예방에 관한 팁을 배워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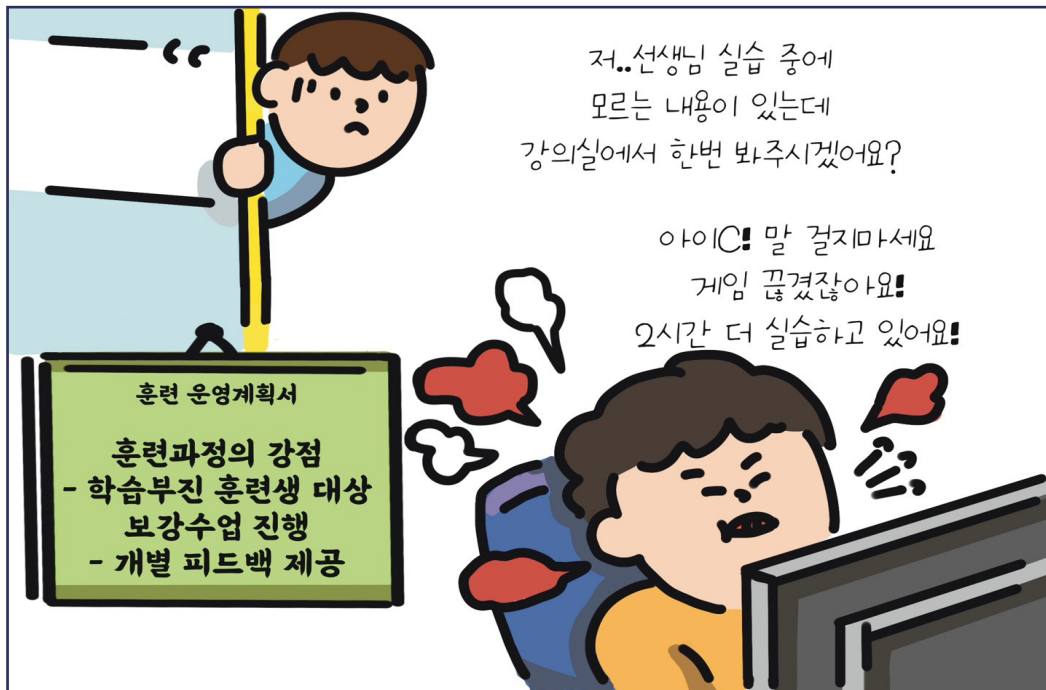
Q. 훈련기관에서는 훈련교·강사의 전문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훈련기관에서는 해당 과정별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훈련교·강사의 경력과 자격을 검토하고, 면담 및 면접을 통해 신중히 배정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매일 작성하는 훈련 일지의 세부 수업 내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직접 참관하여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 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훈련생 면담을 통해 훈련교·강사의 훈련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07

교강사 폭언·자리 이탈

“강사는 게임 실습 중!”



▶ 노래로 들어볼까요?

♪♪ 어제든 오늘도 강사는 자릴 비워
어제는 전화하더니 오늘은 게임해
강사는 강의실을 벗어나선 안돼 언제나 훈련생에 도움을 줘야 해



+ 부정훈련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훈련 진행 중에 훈련교·강사가 훈련생에게 반말이나 욕설을 사용한다면, 훈련생은 강사를 존경하기 어려워지고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교강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훈련생의 학습동기와 의욕을 떨어뜨려 질문이나 토론 등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성도가 저조해지고, 훈련 기관의 성과와 훈련생의 성취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훈련 교·강사는 훈련 시간에 강의실에 상주하여야 하며 자기주도학습을 전제로 외출하거나 사무공간에서 개인 업무를 보는 안 됩니다. 훈련시간 동안 훈련생의 질의에 답하고, 중간 결과물에 피드백을 주는 등 훈련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강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훈련기관은 소속 교강사들의 전문성과 태도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tip 부정훈련 예방에 관한 팁을 배워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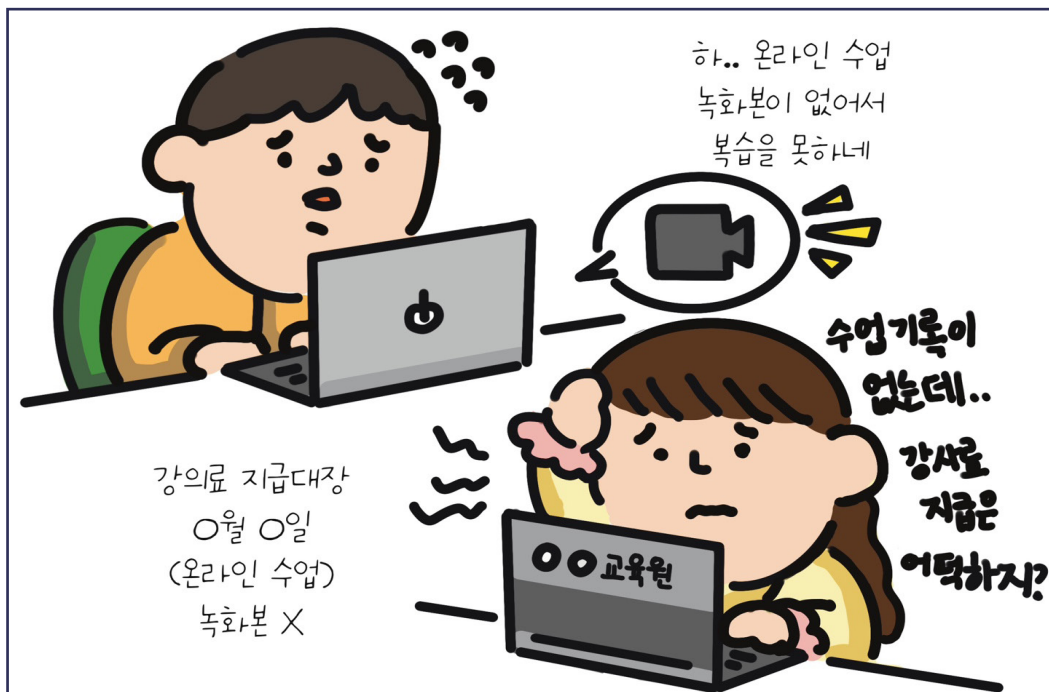
Q. 훈련기관에서는 어떻게 훈련교·강사의 수업 태도를 확인 할 수 있을까요?

A. 훈련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훈련교강사의 언행과 전문성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훈련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강사의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적절한 언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KSQA 홈페이지의 ‘훈련교강사가 훈련시간 중 지켜야 할 10가지 에티켓’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사례 09

훈련 자료 관리 미흡

“기록되지 않은 그날의 수업”



▶ 노래로 들어볼까요?

♪ 온라인 수업인데 남은 건 없고 복습할 자료도 어디에도 없네
수업 기록은 누락돼 출결은 흐릿해 소홀한 관리 의미가 사라져



+ 부정훈련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020년대부터 직업훈련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기존 직업훈련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원격훈련은 승인된 콘텐츠를 비실시간으로 학습하는 방식이었지만,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플랫폼을 통해 훈련생을 가르치고 접속 현황으로 출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훈련교강사는 수업 준비, 훈련 운영, 결과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수업기록’, ‘훈련생 출결 관리’를 누락하거나 소홀하는 등 훈련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훈련은 ‘진행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직업훈련의 본질인 지식과 기술 함양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승인된 훈련시간표에 따라 충실히 운영하고, 훈련 기록을 녹화본 등으로 관리하여 운영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출결 관리 역시 훈련 진행 전, 중, 후에 수업 참여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캡처본, 영상 등)를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말 그 날짜, 그 시간에 수업을 진행했지만 파일을 삭제해서...’와 같은 상황에서 훈련 운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기관은 수업 운영 및 출결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정확한 훈련 실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tip 부정훈련 예방에 관한 팁을 배워볼까요?

Q. 온라인 수업 후 훈련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훈련기관은 출결 관리 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수업 전후로 출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접속 현황이나 캡처본, 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업 녹화본과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훈련생의 출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훈련운영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례 10

교재 미준수

“나만 믿으라더니 이제 와 나 몰라라?!”



▶ 노래로 들어볼까요?

♪ 오래된 교재로 배운 지식 시험에 반영되지 않아
낮아지는 교육의 질 높아가는 불합격 통보



+ 부정훈련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교재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최신 지식과 기술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최신 경향을 반영한 교재는 학습자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을 배우지 않도록 하고, 시험 문제의 경향을 반영하여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 시험에서 동일 훈련기관의 훈련생들이 다수 불합격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관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내용의 자체 교재를 수년간 수정 없이 사용하면서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고, 훈련생들이 필요한 최신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교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해야 하며, 최신 교재를 통해 시험의 트렌드와 중요한 내용이나 변경 사항을 반영하면 훈련생들이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재를 개선하여 새로운 교수법을 반영하면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승인된 모든 훈련 교재를 지급하고, 훈련 강사는 인정받은 교재를 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최신 동향을 파악해 훈련생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 학습효과와 만족도, 기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tip 부정훈련 예방에 관한 팁을 배워볼까요?

Q. 인정받은 자체교재에 최신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만 수정하여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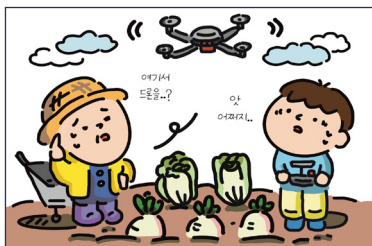
A. 우선, 최신경향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작한 자체교재라도, 고용센터에 교재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정된 자체교재 또는 개정된 시중교재의 표지(앞, 뒤)·목차(기존 교재와 동일 수준), 교재의 발행정보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훈련생에게 배부해 주세요.

보고 듣고 배우는
부정훈련 사례집

02

부록

사례 01



“배추밭에서 생긴 일!”

장소 미준수

▶ 사례 페이지 | 12쪽 ⚙ 노래시작 시간 | 00:03

배추밭은 비행장 아니야
무발엔 드론 띄우면 혼나
조종 연습하려면 알지?
적합한 장소 꼭 찾아야지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돼
정확히 효과적으로 해야 돼
조종사 되려면 확실하게
배추 무발 벗어나 제대로

정확한 비행은 연습이지
거기서 떠봤자 합격 못하지
드론 훈련은 중요하니까
적합한 곳에서 시작해야지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돼
정확히 효과적으로 해야 돼
조종사 되려면 확실하게
배추 무발 벗어나 제대로

비행과 조종은 쉬운 일 아니야
훈련장소 찾는 건 포기 말아야
안전하고 정확한 비행 위해
적합한 장소 찾아야 해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돼
정확히 효과적으로 해야 돼
조종사 되려면 확실하게
배추 무발 벗어나 제대로

사례 02



“짧아지는 털, 늘어가는 자부담비!”

재료 구매 강요

▶ 사례 페이지 | 14쪽 ⚙ 노래시작 시간 | 02:03

설레는 첫 수업 문을 열자마자 하는 말
재료부터 사오세요
오티 때 안내받은 기본 재료는 어디로
친절한 미소는 어디로

뭘 사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날
솔깃하게 하는 도구 박스
이것저것 넣었다며 제시하는 액수
휘둘러 구매한 건 나의 실수

비싼 모형 값에 손이 떨리네
잘못한 가위질에 날아가는 털 비어가는 지갑
저렴한 걸 사겠다니 막아서는 강사
단체로 구매하면 저렴하다고? 웃기지 마
강사가 내민 액수 시중가의 몇 배
뽀뽀 털 때문에 손목 통증도 몇 배

시험은 코앞인데 제자리인 가위질
난 미칠 지경인데 강사는 무심경해
삐죽삐죽 위그 앞에 소심해져 가는 나
가위가 닳았다며 집어 들고 간
강사가 원하는 건 한껏 높인 연마비
덕분에 늘어가는 셀프 연마 기술과

반대로 떨어지면 가는 내 미용 기술
실견 실습을 자꾸만 미뤄 강아지가 없대
겨우 데려온 강아지 포메라니안
또 소형견이야 또메라니안

겨우 한번 실습하니 또 기다리래
오늘도 반복되는 허공에 가위질

추가 재료비는 훈련생 책임이라 해도
기본 재료 제공은 기관의 책임이지
불필요한 재료 모아 비싸게 팔지 마
어떤 재료 살 건지는 훈련생의 권리가
저품질 구해놓고 단체 구매 강요해?
질 좋은 재료 안내와 제공을 실천해

자격증 합격해서 미용사 되려는 꿈?
강사 피드백 없이는 그대로 물거품
가위가 닳았다고 연마해 준다고?
연마비는 시중가에 맞도록 책정해
실견이 없어? 어디에도 없어?
없으면 없다고 꼭 훈련 전에 안내해
시간도 돈도 많이 드는 과정인 만큼
후회되지 않도록 기관이 더 노력해

사례 03



“강아지옷? 사람옷? 우리가 만든 건 무엇인가요?”

임의합반, 훈련내용·훈련시설 미준수

▶ 사례 페이지 | 16쪽 ⚙ 노래시작 시간 | 04:11

직접 만든 드레스 입겠다고
웨딩드레스 국비 훈련 신청했는데
돈금없이 애견 의류 수업한다네?
결혼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리본이랑 코사지랑 베일도 만든다더니
옆 과정이랑 같이 수업해서
시간이 없다구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책임져요
나는 몰라 어떡하죠

자식 같은 내 강아지 옷 만들어 입히겠다고
바늘에 손 찔려가며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웬 웨딩드레스? 헛갈려요 개 옷인지
사람 옷인지

우리 강아지 입혀보고 심화 과정까지
더 배워서 애견 옷 가게 열려 했는데
다 망했어 배운 게 없어

머메이드로 만들어볼까 A라인으로
만들어볼까 설레는 마음 안고 시작했는데
디자인 다 끝내고 보니 웬일이니
크기가 작아! 강아지 드레스를 만들어버렸네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비슷하다고 욕심내다 두 마리 토끼
다 놓쳐요
훈련은 제발 따로따로 운영해 주세요

티셔츠랑 후드티, 조끼 가방까지 만든다더니
웨딩드레스 만들고 남은 천으로
강아지용 드레스를 만들라구요?
싫어요 우리 강아지는 드레스 필요 없다구요
안내했던 애견의류나 만들라구요

사례 04



“도자기와 함께 빛어지는 갈등”

임의합반

▶ 사례 페이지 | 18쪽 ⚙ 노래시작 시간 | 06:09

도자기 흙을 만지며 배워가는 길
취미와 소양 온갖 명분 속에
직업 훈련생도 함께 섞여들어
공정한 길이 아득하게 멀어져가네

공정한 교육 꿈꿔야 해
직업훈련 국비 아깝지 않게
취업을 향한 꿈에 힘을 넣어
도자기 흙이 우릴 인도하게

물레 위에 오르는 꿈 많은 훈련생
취업 목표로 진심을 담아 빚고
불공정한 운영 방해하는 오늘
국비훈련 충실하게 집행돼야지

흙 속에 우리의 꿈을 담아
물레 위에 희망을 빚어내
국비훈련 공정하게 돌아가길
소망하며 손끝에 힘을 담아

흙 속에 우리의 꿈을 담아
물레 위에 희망을 빚어내
국비훈련 공정하게 돌아가길
소망하며 손끝에 힘을 담아

공정한 교육 꿈꿔야 해
직업훈련 국비 아깝지 않게
취업을 향한 꿈에 힘을 넣어
도자기 흙이 우릴 인도하게

취미로 배우는 사람도 좋지만
직업으로 꿈꾸는 이는 더 중요해
국가의 지원 제대로 쓰여야만
훈련생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어

흙 속에 우리의 꿈을 담아
물레 위에 희망을 빚어내
국비 훈련 공정하게 돌아가길
소망하며 손끝에 힘을 담아

사례 05



“실습일까? 노동일까?”

근로 강요

▶ 사례 페이지 | 20쪽 ⚙ 노래시작 시간 | 09:22

자격증 따려고 병원에 갔더니
고생길 열렸네 가슴 아프네
돌봐줄 사람 많다 말했는데
청소만 시켜요 무슨 일이야

매일 아침 청소 도구 들고
바닥 구석구석 닦아내고 나니
요양보호사 배우러 왔건만
배울 건 없으려 허리 휘어져

청소만 시키네 내 자격증은 어디로
안 돼 나 그만두면 안 되는데
빗자루 들고 요양보호사 공부하네
힘든 길 가겠어 나 할 수 있어

친구들은 자격증 땀다는데
나는 청소만 하고 한숨 쉬네
학비 들여 고향 떠나왔는데
병원 청소부가 내 직업이야

청소만 시키네 내 자격증은 어디로
안 돼 나 그만두면 안 되는데
빗자루 들고 요양보호사 공부하네
힘든 길 가겠어 나 할 수 있어

교육받으러 바다 건너 왔네
청소하러 왔나 손목이 아프네
요양보호사 꿈이 멀어지나
청소만 시키는 병원 같은 곳

사례 06



“강사에겐 보이지 않는 교과목”

훈련내용 미준수

▶ 사례 페이지 | 22쪽 ⚙ 노래시작 시간 | 11:38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눈빛들
하지만 강사님의 수업 내용엔 몇 과목이
빠져 있네
자습으로 대신하고 다른 과목으로 채우고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사라져만 가네

배움은 빛나야 해 그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손길로 꿈을 빚어야 해
강사의 책임 훈련기관의 믿음
모두가 함께 이뤄가야 할 약속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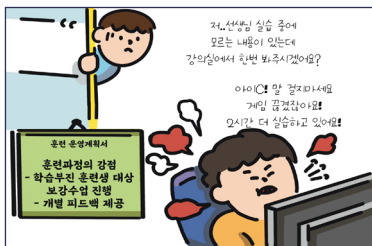
비전문 과목은 피해가고
지식 없는 강의는 의미를 잃어가네
훈련생의 시간은 소중한데
빈틈이 생기면 미래가 흔들리네
전문 강사가 필요한 이 자리
훈련의 중요함을 다시 새겨야 해

훈련기관의 눈과 손이 되어
훈련 과정을 항상 살펴봐야 해
놓쳐지지 않는 교과목
배움의 끈이 끊기지 않게
강사는 배움의 등불이 되어
훈련생의 길을 밝혀야 해

배움은 빛나야 해 그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손길로 꿈을 빚어야 해
강사의 책임 훈련기관의 믿음
모두가 함께 이뤄가야 할 약속이야

강사와 훈련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길
훈련생의 미래를 책임질 약속의 빛
빈틈 없는 훈련 전문성 있는 배움으로
모두가 꿈꾸는 내일을 완성해가리

사례 07



“강사는 게임 실습 중!”

교강사 폭언·자리 이탈

▶ 사례 페이지 | 24쪽 🎧 노래시작 시간 | 13:42

어제도 오늘도 강사는 자릴 비워
어제는 전화하더니 오늘은 게임해

질문은 타박과 욕설로 돌아오고
우리는 오늘도 인터넷 서칭만 해

강사와 우리 모두 한 공간에 있어
그곳은 강의실이 아닌 인터넷이야

강사는 오늘도 열심히 레벨업 해
우리는 오늘도 멍하니 자습만 해

강사는 게임 속 괴물을 물리치고
우리는 마음속 분노를 다스리고

아무리 훈련생이 실습한다 해도
질문과 피드백은 성실히 답해야지

강사는 강의실을 벗어나선 안돼
언제나 훈련생에 도움을 줘야 해

강사의 존중과 열의가 있어야만
훈련의 의욕과 성과도 높아지지

사례 08



“경력자는 자격 없어도 OK?”

훈련내용 미준수, 무자격 강사

▶ 사례 페이지 | 26쪽 🎧 노래시작 시간 | 15:56

도배의 기본도 모른 채
무자격 강사가 수업을 망쳐
이론은 뒷전 실습은 대충
질문엔 침묵 답 없는 수업

이런 수업 누구를 위한 건가?
훈련생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도배의 길을 막지 마
무자격 강사는 이제 그만
정직한 배움이 길을 열고
훈련의 가치는 우리가 지켜

모두의 신뢰가 첫걸음
배움의 길을 함께 걸어요.



“기록되지 않은 그날의 수업”

훈련 자료 관리 미흡

▶ 사례 페이지 | 28쪽 ⚙ 노래시작 시간 | 17:05

온라인 수업인데 남은 건 없고
복습할 자료도 어디에도 없네
수업 기록은 누락돼 출결은 흐릿해
소홀한 관리 의미가 사라져

훈련시간표 그대로 지켜
수업 운영은 꼼꼼히 출결 관리 확실히
기관과 강사가 함께 책임져

비대면이라도 기준은 똑같이
수업 운영과 출결 관리 지침을 익혀

훈련 실적을 확실히 남겨서
신뢰와 만족도 함께 높여요

비대면이라도 기준은 똑같이
수업 운영과 출결 관리 지침을 익혀

훈련 실적을 확실히 남겨서
신뢰와 만족도 함께 높여요



“나만 믿으라더니 이제 와 나 몰라라?!”

교재 미준수

▶ 사례 페이지 | 30쪽 🎛 노래시작 시간 | 18:08

오래된 교재로 배운 지식
시험에 반영되지 않아
낮아지는 교육의 질
늘어나는 불합격 통보

교육효과 신뢰도 높여요
교육효과 신뢰도 높여요
교육효과 신뢰도 높여요
교육효과 신뢰도 높여요

훈련기관은 반드시 확인해
최신 경향 시험 트렌드 반영
정기적 업데이트 필수

훈련강사는 반드시 확인해
승인된 최신 교재 사용

정확한 정보 제공
교육효과 신뢰도 높여요

훈련강사는 반드시 확인해
승인된 최신 교재 사용

정확한 정보 제공
교육효과 신뢰도 높여요



발행 연월	2024년 12월 인쇄 2024년 12월 발행
발행인	이 장 희
발행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품질관리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12층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종합민원센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사전 허락 없이 이 책자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